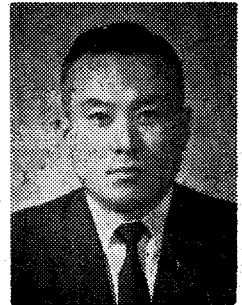


'71년도 하계 양계대강습회

경영과 관리의 개선점

오 세 정

〈건대 축대 교수〉



근년에 와서 양계업계는 숫자적으로나 경영규모 나아가서는 기술면에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낀다. 하루 속히 선진국과 같이 성장되자면 그들의 발전과정을 살펴 잘못의 반복을 거치지 않고 지름길을 향하여 몇배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면 타인이 10년만에 이룬것을 우리는 2~3년에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최근 양계업계는 큰 공황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발전적인 전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즉 수요에 비하여 생산과잉으로 계란값과 닭고기의값이 하락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외화환율의 인상으로 인하여 사료값의 10% 내외가 인상된 현실에 종래의 사양관리와 경영방식을 답습 반복만 하게 된다면 큰 위기와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된 양계 산물을 유리하게 판매하느냐 하는 경영의 합리화와 관리의 과학적인 기술향상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배우고 연구하며 창의와 창조적인 정신자세를 가지고 힘껏 일해 나가야 한다.

얕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가장 잘 알고 기술자인 척 하는 고식적인 사고방식은 성장 발전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월간잡지나 서적을 통하여 또는 강습회, 좌담회, 전학등에 수시 참여하여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친 편견인지 몰라도 술한잔, 차한잔 마시는 것은 아깝지 않아도 교양과 기술의 습득,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월간 양계잡지를 경시하고 100원에 구독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며, 강습회에 나가면 무엇하느냐? 추상적이고 들으나 마나한 이론이라고 아예 외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혹자는 어디서 주취가 되어 하니까 점심과 기념품이나 받으러 가자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 자가 간혹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남의 잘잘못을 거울삼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대체로 느끼는 것이지만 서울에서 매월 월례강습회에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은 사업이 나날이 발전되고 있으나 자칭 잘 알고 또한 관심이 없어 나오지 않는 사람은 크게 발전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

□ 경영관리의 개선점 □

니 우리는 항상 보고 배우며 연구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알면 실천에 옮기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1. 양계협동조합의 구성을 촉구

대기업적인 경영에도 협동과 계열화가 이루어져야 하거늘 영세한 전업 또는 부업에서는 특히 지역별로 양계조합을 조직하여 구매, 생산, 판매등을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발전시키는 요소라고 본다. 즉 양계업을 경영하는 사람끼리 서로 협조, 단결, 운영함으로써 유리한 경영이 될 수 있다. 즉 양계조합에서 하는 일은;

(1) 모든 재료의 공동구입

병아리, 사료, 약품, 기구등을 공동으로 구입함으로써 품질의 보장, 가격의 염가, 운반비와 여비의 절약, 노력과 시간의 절약등을 기하게 됨으로써 개인으로 소량씩 구입하는 것 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값싸게 구입이 되는 것이다.

(2) 공동방역으로 방역위생에 철저

지역별로 집단양계를 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예방과 방역대책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비단 과용하게 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예방하고 방역대책을 세우며 위생관리를 하도록함으로써 방역의 철저는 물론 경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에서 전담 수의사를 두어 공동관리를 하므로써 기술의 전문화와 작업의 분업화가 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되며 질병에 대하여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것이다.

(3) 시설과 기구의 공동이용

분쇄기, 배합기, 건조기, 운반차, 세란선란기 육추사, 등등 특수한 시설과 값비싼 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하므로써 시설과 기구 구입에 투자가 적게 들며 능률적인 활용을 기하게 된다.

(4) 기술의 도입과 연구개선을 공동으로 하므로써 급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협조하므로써 경비의

감축은 물론 성과를 단시일 내에 거둘 수 있게 된다.

(5) 생산물(계란, 폐계, 부로일러, 계분, 공기마, 지대등)의 공동 출하와 판매

생산물의 판매를 공동으로 하므로써 제통출하를 하게 되며 유통경로를 단축시키어 판매중간경비의 감축과 유리한 판매를 할 수 있다.

(6) 공제제도의 설치와 자금이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조합원 상호간에 친목과 협조정신의 양양으로 공존과 불의의 사태에 대비 공제체도로 자금의 회전율을 높이며 활용도를 높혀 유리한 경영이 되는 것이다.

기타 계획생산과 유통체계의 확립, 소비증대, 계열화 생산체제등 여러모로 유리한 경영을 하게 되며 안정되고 분업적인 전문화를 기하게 되어 사업은 발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뜻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우선 2명이나 3명도 좋으니 조합을 구성하기를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2. 경영의 다각화에서 분업적인 계열화 제제로

사람의 능력에는 한도가 있으며 또한 사업이 복잡하면 할수록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분야별로 계약생산, 또는 분업적으로 계열화하여 종목과 생산의 단순화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예를들면 육성, 산란계, 종계, 부화등을 각각 분업화하고 계획생산과 부분적인 전문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며 전업에서도 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부화장의 시설개선과 위생대책

최근 서울, 경기 일원에 등록된 부화장 9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차 방문한 바 있어 느낀 것이다. 양계사양기술과 시설면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하여 부화장의 시설과 위생에 대하여는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구태의연하고 개선된 점을 볼 수 없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지표는;

(1) 부화장 부근에는 육추, 성계 사육장, 도계장 등 질병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과 멸

어져 있어야 하며 방역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의 상호교류가 있어서는 안된다.

(2) 부화실내에는 의인의 출입을 엄금토록 하며 종란소독을 비롯하여 부화기내, 실내의 소독을 철저히 할 것.

(3) 부화실외에 배부실, 종란저장실, 소독실, 사무실, 초생후 보관실등은 최소한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4) 부화후 나오는 난각, 사롱난 등 폐물처리장을 설치하고 소각 및 매물처리를 철저히 할것.

이상 몇가지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들었으나 위생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할것.

4. 병아리 선택과 능력

산란계의 선택에 대하여는 수차 한국가금협회에서 경제능력검정을 통하여 그 성적이 발표되었고, 또한 어떠한 것이 경제계라고 제시되었으며 많이 알려졌으나 육계에 대하여는 전용종의 하이부로를 제쳐 놓고 세미부로에 대하여는 너무나 교잡방법이 다양하고 무질서하며 성장율, 균일도, 사료요구율이 크게 차이가 있어 선택에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표 1〉 (최참해 교수 연구 발표에서)

	8주시 체중	8주시 사료요구율
S	1,400 g	2.39
P	1,386	2.54
B	1,453.7	2.59
CW	1,251.3	2.65
CN	1,066.7	2.71
CR	1,159	2.67
CL	998.7	2.92
CLN	1,047	2.87
CWR	1,233.3	2.64
CWL	1,118.7	2.69
CRW	1,330.6	2.52
W	997.7	2.75
N	840	3.11
R	815	3.20
L	708.7	3.39
C	1,225	2.68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용종은 평균1.4

kg 내외가 되며 세미에서는 교잡양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고 특히 순수종은 거의 1kg이하의 체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세미종에 있어서는 교잡양식을 알고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5. 환경과 관리여하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작년과 금년에 걸쳐 동일한 품종을 가지고 같은 사료로 같은 시기에 사육장 시설과 관리자만 별도로 관리시켜 시험을 실시한 바 체중, 사료요구율, 폐사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양계업자는 병아리의 성장이 나쁘고 폐사가 많으면 으레히 책임을 사료와 부화업자에게 돌리는 것이 상례인데 우리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전에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특히 느낀 것은 밀사와 환기불량의 원인이 컸으며 사육중 스트레스를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 8주까지의 성적

장소	체 중	사료요구율	폐사	비 고
A	1,468.0	2.28	6	전용종
B	1,142.4	2.59	14	
C	1,419.7	2.23	15	
D	1,361.8	2.21	0	
E	1,126.7	2.49	4	세미종
F	1,334.4	2.43	0	
G	1,381.3	2.17	3	
H	1,130.2	3.20	24	

6. 영양첨가제의 선택과 주의할 점

시중에 판매 배합되고 있는 영양첨가제에 대하여 사양시험을 실시한 바 첨가의 유의성을 인정하나 종류에 따라 성장과 사료요구율, 폐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사료공장에서나 양계가는 항상 주의하고 연구 분석하여 좋은 첨가제를 선택하여 이 용토록 할 것이고 균일하게 적정량을 배합하며 편식과 과식으로 증독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 할 것.

〈표 3〉

구	분	7주시 체중	사료요구율	폐사
A		934.8g	2.27	3
B		1,139.3	2.23	0
C		1,056.5	2.37	3
D		1,109.1	2.27	3
E		1,066.4	2.36	2
F		1,107.7	2.26	3
G		1,141.8	2.25	2
H		1,072.5	2.34	1
I		1,135.9	2.26	2
J		1,054.9	2.37	5

7. 산란계 육성은 방사로

근년에 와서 양계사육에 운동장 없이 육내 사육 또는 배터리에서 케이지로 일생동안 기르며 능력의 향상과 위생에 인공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오히려 능력의 저하와 질병으로 인한 폐사와 도태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백혈병과 마택병으로 인한 피해는 크며 이러한 여러 질병에 대하여 건강한 닭에는 피해가 적은 것이니 육성과정에서 야외 방목장이나 방사하므로써 자유로이 운동, 채광, 신선한 공기의 호흡과 청초의 섭취 등으로 튼튼하고 단련된 건강계가 되므로 중추에서부터 초산직전(120일령)까지는 윤환, 이동방사를 하므로써 산란 중 폐사 및 도태계가 적고 성계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농촌에서 지역적인 여건이 해결되면 방사를 하도록하며 그렇지 못하면 노천에서 야외 케이지에 사육하므로써 마택병에 대한 피해를 적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8. 계사에 같은 일령의 것을 한번에 넣어 키우고 한꺼번에 도태를 실시할 것(올인 올아웃)

같은 계사내에 일령이 다른 것을 년중 계속하여 넣어 키우면 관리의 불편 뿐만 아니라 방역상 매우 곤란하다. 그러니 성계뿐만 아니라 육추에 있어서도 한 장소에서 입추하여 출하할 때까지 키우는 것이 육추율을 향상시킨다. 장소의 이동은 스트레스가 클 뿐 아니라 육추율을 저하

시키는 원인이 된다.

9. 사료요구율의 개선을 촉구

양계사업에 있어서 사료요구율의 개선은 수익성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뿐 아니라 경영상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료요구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들면;

(1) 닭의 품종, 연령, 성별에 따라서 틀리는 것으로 자신의 유전적인 요소에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사료의 효율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사육하는 환경에 영향이 크다.

지나친 더위와 혹한은 피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밀사를 하지 말며, 환기 통풍이 잘되고, 건조되어야 한다. 식욕의 감퇴와 불안감을 주지 않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즉 스트레스가 없도록 환경의 조성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사료의 품질이 과학적이고 경제적이며 균형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즉 품종, 연령, 시기, 능력,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배합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4) 사료의 양적 질적 손실을 없애야 한다.

닭이 먹지는 않았으나 흘린다고 쥐가 먹어 물량상의 손실을 가져 왔다면 결과적으로 경영상 사료요구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료가 변질되고 곰팡이가 발생되면 양분의 산화로 손실이 되며 곰팡이가 생긴 사료를 먹으면 체식량의 감퇴는 물론 발육의 저해 나아가서는 곰팡이성 질병에 걸려 폐사가 된다. 그러니 항상 사료효율을 향상시키도록 사양관리의 철저와 환경의 조성 나아가서는 우수한 품종의 선택이 중요하다.

10. 관리의 기계화

시설과 관리를 기계화하므로써 1인당 관리수수를 증대시킬뿐 아니라 경영상 유리하다. 기계화의 장점은;

(1) 인건비가 적게 든다.

(2) 인사관리가 철저히 되며 용이하다.

- (3) 닭에게 안정감을 준다.
 - (4) 작업의 균일성을 도모한다.
 - (5) 관리의 정확성을 기한다.
 - (6) 세밀한 관찰이 된다.
 - (7) 방역상 위생적이다.
 - (8) 작업내용이 충실하고 손실이 적다.
 - (9) 인력의 한계를 넘는 것을 해결한다.
- 이와같은 장점이 있는 바 하루 속히 부분적이거나 기계화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1. 계의 유리한 판매

계란 1개당 1원을 남보다 더 받으면 산란율을 5% 더 올린 것과 같은 성적이 된다. 그러니 생산능력의 향상을 위한 품종의 선택, 사양관리,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산자는 계란값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며 훌륭한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 (1)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즉 유통과정을 단축시켜 중간마진을 줄이도록 할것.
- (2) 개수 판매를 지양하고 1Kg당으로 달아서 판매할 것.
- (3) 난질을 검사하여 혈난, 이물난의 제거는 물론 난형을 균일하게 할 것.
- (4) 난각에 오물이 묻지 않도록 세란하여 깨끗이 포장하여 상품가치가 있게 할 것.
- (5) 파란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함은 물론 난각을 튼튼하게 생산할 것.
- (6) 계란의 기공확장과 난질이 변하지 않는 저란실을 갖추어 신선란을 공급할 것.
- (7) 계란적매소와 공판장을 설치할 것. 나아가서는 계란 도매시장의 설치로 형성가격의 안정과 정보의 신속을 기할 것.
- (8) 계란의 소비증대를 촉구하는 선전과 계몽을 실시할 것.

12. 부로일러사업의 개선점

- (1) 부로일러 전용종의 사육은 평사에서 육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 (2) 사육중 이동하지 말고 한곳에서 입추하여 출하까지 이루어지는 사육방식을 택할 것.

- (3) 종류에 따르는 출하 적령과 체중을 알아서 적기에 출하토록 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
- (4) 급여하는 사료의 종류는 난용계종은 한가지, 세미종은 전후기로, 전용종은 전기, 중기, 말기사료의 3종으로 구분하여 급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5) 사육중 밀사가 되지 않도록 하며 환기의 철저와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어린병아리때는 밤새도록 점등을 하여 사양관리를 하여도 좋으나 후기에 가서는 4~6시간정도 소등을 하여 잠을 재우는 것이 비육 촉진상 유리하다.

(7) 부로일러는 생계 유통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체중의 감량이 많아지니 도계유통을 하도록 할것. 즉 운반방법, 수송기구, 사육방식, 기간,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며 처음 2~3시간에는 시간당 1%의 체중이 감소된다.

(8) 계획생산으로 출하조적을 체계화하며 유통의 합리화를 기할 것.

(9) 1회 입추수수의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최소단위로 하여 사육할 것. 다시 말하면 적은 수를 6일 간격으로 넣어 육추의 복잡성을 가져오지 말고 한번에 많이 넣도록 할것.

이상 여러가지로 간단히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양계는 종전보다 경영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계산을 하여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는 기술의 과학화와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과학적인 생산양계, 경영하는 양계, 협동과 계열화하는 양계가 되어야 한다. □□

